

컬렉션에서 본 퓨전(Fusion)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박 선 화*

공주영상대학 코디메이크업과 교수

21세기를 전후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예술, 문학, 가치의 영역으로부터 기존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통합적인 세계관으로 변모되어 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 코드인 □퓨전□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퓨전은 곧 상상력이며 새로움에 대한 탐구이다. 이것 저것을 섞으면 어느 것이 나올까하는 호기심과 도전의식, 여기에 새로움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퓨전은 음악, 인테리어, 패션 음식 등 이미 널리 사용되어져 왔으며 퓨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미 없는 단순한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혹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면 개념과 전통을 파괴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문화로서의 창조인 것이다.

또한 여성의 미적 욕구 충족의 수단인 의상과 메이크업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컬렉션에서 제시하는 토탈 패션으로서의 의상과 메이크업의 조화가 현대 사회의 새로운 문화코드인 □퓨전□과 접목하여 분석해 볼 때, 메이크업의 장르를 새로운 장르로 분류하여 메이크업의 이미지가 어떻게 연출되었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2003년 S/S에서 2006년 F/W까지 발행된 국외 패션전문잡지인 Book Moda, Collezioni와 국내 패션 전문잡지인 Fem을 수집하여 각 장르별 의상과 메이크업의 조화를 네 가지 장르별로 분류하여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Genderless(남성과 여성의 조화)

현대 사회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약해 보이는 여성상 보다는 파워풀한 여성상을 동경한다. 남성과 여성인 성의 개념을 초월한 매니쉬 룩과 페미닌 스타일의 의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현상의 중성적인 이미지의 메이크업으로 연출되어 강인한 이미지, 더 나아가서는 접근하기 힘든 혐오스러운 이미지의 메이크업으로 연출되었다.

2. Timeless(과거와 미래의 조화)

과학 문명과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계속 흘러간다. 중세시대 흑기사의 철갑 복장을 연상하듯이 메탈소재를 사용하여 마스크 형태로 신비스러운 이미지 연출, 로코코 시대에서 모티브를 얻은 의상과 블루 페인팅과 실버 펄의 메이크업, 1950년대 크리스찬 디올의 톨립라인 의상과 마블린 먼로 메이크업에서 모티브를 얻은 핑크 펄과 뷰티 마크의 과장된 메이크업, 아

* Corresponding author: sunnyp10@hanmail.net

르데코 스타일의 강렬한 기하학적 의상과 함께 비닐소재를 사용하여 미래지향적이면서 창조적인 새로운 메이크업의 세계를 느끼게 한다.

3. Classless(상위문화와 하위문화의 조화)

계급과 신분의 차이나 빈부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상위문화와 하위문화는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상위문화에서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은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의상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위문화에서의 빈곤함은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은□추□의 이미지로 메이크업이 연출되었다.

4. Cultureless(동양과 서양의 조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요소를 의상과 메이크업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다. 일본의 전통적인 기모노를 변형한 프릴 드레스와 자수가 조화를 이루면서 가부키분장의 주요색인 화이트와 레드와 전통 분장을 살리면서 형태에 있어서 눈 꼬리 부분에 좀더 아트적인 이미지를 가미한 메이크업, 그린 모피 의상과 중국의 경극분장에서 모티브를 얻은 드라마틱한 이미지의 메이크업,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모티브를 얻은 골드 알루미늄소재의 드레스에 호피 망토의 의상과 클레오파트라를 연상한 골드 펄과 블랙 시트지를 사용한 환상적인 이미지의 메이크업, 아라비아반도 예멘에서 모티브를 얻은 크리놀린 드레스와 조선시대의 가채를 연상한 커다란 머리장식의 연출과 함께 블랙라인과 점 터치 형태의 아이메이크업 기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마치 홍조 띤 얼굴을 보는 듯한 붉으스름한 볼의 에스닉 이미지의 메이크업이 연출되었다.

이상과 같이 컬렉션에서 본 퓨전메이크업을 남성과 여성인 성의 개념을 초월한 중성적인 이미지의 젠더 메이크업,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초월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의 크리에이티브 메이크업, 상위문화와 하위문화가 조화된 □추□의 이미지인 더티 메이크업, 동양과 서양의 조화인 에스닉 메이크업으로 분류하였다.